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이 헌 진

목 차

- I. 현대사회와 평화
- II. 서양철학의 평화 개념
- III. 동양철학의 평화 개념
- IV. 평화 철학의 가능성 검토

I. 현대사회와 평화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동아시아의 정세를 급박하고 위태롭게 만들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극우 성향의 정치가이며, 활동 역시 극우 경향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헌법은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및 교전권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는 등의 '위협적인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독자적인 행보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에게까지 위기의식을 전해주었다. 일본은

■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한국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영토 분쟁 또한 물러서지 않을 인상을 심어주었다. 또한 일본이 상당수 국민은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등 아베 정권의 행보에 의문을 품는 이도 생겨났다.

급격한 우경화가 진행 중인 일본의 정세와 극우 성향의 아베 정권의 행보는 일본이 19세기~20세기의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는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을 떠올리며 일본과 더욱 대립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며, 중국에서도 난징대학살 등 일본이 중국에 저지른 만행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북한의 정권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 등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지난 3월 5일에는 정전협정까지 백지화 하는 등, 3~4월의 한반도를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더군다나 김정은은 근해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로 일본까지 긴장하게 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위협하며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처럼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는 급박하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몇 일내로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여 우리나라가 군사적 보복을 한다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또한, 일본의 아베 정권이 극우성향의 활동을 이어나가다 영토 분쟁의 정점을 찍는다면, 이 역시 동아시아 정세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전쟁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종전 국이 아니며 북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폐기로 인해 휴전 국이라는 말도 무색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에서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정세에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철학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철학으로 평화를 이룩해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야 할지를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 더 자세하게 들어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상은 어떤 것이 있고 평화에 관한 어떤 사상이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건과 동양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평화론은 목자의 ‘비공설’이다.

목자의 시대는 너무 잦은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질서가 유린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종식을 기원하였다. 지식인들 역시 너무나 많이 전쟁의 종식을 부르짖고 나섰다. 그러나 지식인들 사이에도 전쟁종식에 대한 방법은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병가와 법가의 경우 적극적 전쟁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였던 반면 유가나 도가, 묵가 등은 전쟁부정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묵가는 전쟁비판론, 이른바 ‘비공’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전쟁반대의 최전선에 나섰다.

물론 전쟁과 평화는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반복되었고 사상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발전되었다. 그 때마다 철학자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철학을 내놓았다.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레비나스 등이 평화사상을 주장했다. 앞에 나열한 서양철학자들이 주장한 사상은 각각 중세, 근대, 현대를 대표하는 평화철학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게 평화를 동양의 정서로 해결해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양의 정서도 받아들였고 서양의 정서 또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논지는 과거 동·서양의 대표적인 시대상과 평화 개념을 확인해보고 평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서양철학의 평화 개념

서양철학에서 평화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하나의 영역으로

■ 철학의 대중화 - 이현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모든 철학자들이 전반적으로 제기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와 근대의 칸트, 그리고 현대의 레비나스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평화개념을 분석해보면 중세 기독교의 평화 개념이 근대와 현대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진지하고 성실한 학자들이 그러하듯이, 토마스 역시 당대에 접근 가능했던 모든 기존의 이론을 자신의 이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평화와 전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토마스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¹⁾ 그렇다고 해서 토마스가 단순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두 사람의 이론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토마스의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혹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와는 상당히 달라진 점이 있었다.

즉, 11세기 후반에 있었던 교황 혁명을 통하여 교회는 세속권력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점차 강화된 교황의 권력은 토마스가 태어날 무렵인 13세기 전반에 절정에 이르렀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교회가 세속 권력의 부재를 채워 줄 역할을 맡았다면, 토마스 시대의 교회는 세속 권력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속 국가들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는 교회법의 발전을 통하여 뒷받침되었고, 이것은 봉건제의 붕괴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마스의 시대에 있어서 국가, 그리고 그 핵심 기능으로서

1) 채이병,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평화의 문제」, 한국철학회, 『철학』 제78권 제1호, 2004, 76쪽: “아리스토텔레스철학, 신플라톤주의, 교부철학 등의 기존의 철학은 물론, 성서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평화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독특한 평화관을 확립한다.”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의 평화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것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현세의 질서는 「원죄에서 비롯된 인간의 사회적 타락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²⁾로서 아직도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면, 토마스에 있어서 평화와 국가는 긍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까지 했다.

둘째, 토마스는 이러한 변화한 사회 속의 평화에 대한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이론을 활용하였는데 그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정치를 인간의 궁극적 행복을 위한 덕목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보았는데, 이 입장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국가에 부여하기 위한 훌륭한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는 토마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가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통하여 인간의 행복에 대한 욕구가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토마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오로지 초월자인 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국가 역시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³⁾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했으며 자족적인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국가의 궁극 목적을 신에게서 찾는 토마스의 그리스도교적 관점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일치하기 어렵다.⁴⁾ 따라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는, 13세기의 문제 상황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리스도교와의 대립을 재발견하게 되는데, 토마스는

2) 신일섭, 「토마스 아퀴나스의 국가관과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 인천가톨릭대학교 종교철학 석사학위논문, 2009, 30쪽.

3) 위의 글, 32쪽.

4) 위의 글, 33쪽.

■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이 두가지가 서로 조화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토마스가 도입한 방법은 자신이 “사물의 이원론적 질서”라는 것이었는데,⁵⁾ 한 마디로 말하자면 자연적인 영역과 초자연적인 영역을 나누고 각각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위에는 보다 상위 개념으로서의 신이 존재함을 토마스는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토마스의 사고방식은 그가 법을 구분할 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이분한 후 그 위의 상위 개념으로서 영구법을 인정한 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⁶⁾

이제 토마스의 평화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토마스는 평화의 개념을 합일에서부터 출발하여 설명한다.⁷⁾ 합일은 인간들간의 합의인데, 여기에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합의(위장된 평화)가 있고, 자발적인 합의(참된 평화)가 있다. 이 점에서 토마스는 평화는 ‘질서있는 화합’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를 수용한다. 또한, 욕구하는 어떤 존재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질서의 평온’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 역시 받아들인다. 또한 사랑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본다는 점에 있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평화를 정의, 지혜, 덕(행복, 성령의 열매)와 관련시켜 논의하는데,⁸⁾ 이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영향이 크다고는 하더라도 토마스의 독창성 역시 발휘되고 있다.

우선 토마스는 평화를 국가와 관련시켜 논의한다. 인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가정, 도시, 왕국과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게

5) 위의 글, 33쪽.

6) 오세혁,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2004, 73쪽 이하.

7) 이하는 채이병, 앞의 글, 77쪽 이하의 내용에 크게 의존하였다.

8)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채이병, 위의 글, 81쪽 이하를 참고할 것.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된다. 결국 국가는 이러한 공동체의 최상위 개념으로서 하위의 공동체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가장 포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이다.

평화와 국가와의 관계는 마치 건강과 생명체의 관계와 같다. 바람직한 인간의 공동생활은 평화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하다. 또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정치체제, 즉 국가이다.⁹⁾

국가가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법이다. 인간 본성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신정법과 자연법으로는 부족하고 인정법으로서의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토마스는 생각했다.

다음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1795년에 체결된 프랑스와 프로시아 간의 바젤 평화조약 이후에 쓰여 졌다. 따라서, 바젤 평화조약은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젤 평화조약은 라인강 지역의 프로시아 영토를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프랑스의 점령 하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라인강 지역의 프로시아 영토가 프랑스에게 양도된다는 비밀조항을 달고 있었고, 이 비밀 조항이 알려지게 되자 프로시아 국민과 마찬가지로 칸트는 대단히 분노하게 된다.¹⁰⁾ 이리하여 칸트는 바젤 평화조약을 진정한 평화조약이 아닌 단지 하나의 휴전으로 여기고, 영구평화를 수립할 수 있는 이념적 근거와 철학적인 기획을 시도하게 된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의 제2장에서 영원한 평화를 위해 세가지 확정조항을 제시하는데, 이는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조항은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공화정체란 “첫째 (인간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 원리에 의해, 둘째

9) 채이병, 위의 글, 94쪽 이하 참조.

10) 최재희, 『칸트』, 청산문화사, 1974, 203쪽.

■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신민으로서) 모두가 단 하나의 공통된 입법에 의존하는 의존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셋째 (국가시민으로서) 그들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 확립되는 정채”이다.¹¹⁾ 공화정체는 전체정체의 반대인데, “입법부로부터 집행권(행정부)을 분리시키는 정치적 원리이다.” 이에 반해 “전제정체는 국가 스스로 포고한 법률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정치적 원리이다.¹²⁾ 따라서 전제정체에서 공적인 의지는 지배자에 의해 지배자 자신의 의지로 취급된다.”¹³⁾

공화정체의 핵심적 요소는 대의체에 존립하는데, 칸트는 대의체에 입각한 공화정만이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체제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직 공화정체 아래서만 전쟁이 방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까닭은 공화정체 아래서는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해서는 안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필요한테, 이때 국민은 자신의 신상에 다가올 전쟁의 재앙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경기를 감행하는 데 무척 신중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¹⁴⁾

칸트가 말하려는 것은 ‘국가들 사이의 합법적인 대외관계’이다.¹⁵⁾ 즉 한 국가 내에서 자유로운 시민들 사이의 평화로운 결속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것이 법이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이듯이, 국가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을 평화롭게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역시 국가들 사이에 확립된 법적 질서이다. 칸트는 “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해결을 강요하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보편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의 건설이라”고¹⁶⁾ 생각했던 바, 이런 범적상태의 확립은 단순히 한 국가 내에

11) 칸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광사, 1992, 26쪽.

12) 위의 글, 28쪽.

13) 위의 글, 같은 쪽.

14) 위의 글, 같은 쪽.

15) 칸트,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33쪽.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서 공화적 체제를 수립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들 사이의 합법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까닭은 합법적인 국제관계가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라들 사이의 합법적 관계의 확립이 각 나라의 공화정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완전한 시민적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문제는 합법적인 국제관계의 문제에 의존하며, 이 후자의 해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¹⁶⁾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전면적 전쟁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국내적으로도 온전한 의미의 공화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아마도 그것은 전쟁이 한 나라를 전제정치적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칸트에 따르면 국내적 차원에서 법적 상태를 확립하는 것과 국제관계에서 법적 상태를 확립하는 것은 서로 공속한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국가들 사이의 법적관계는 한 국가 내의 시민적 법질서와 유비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들 사이의 국제법적 관계에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합의된 국제법에 따라 연방”을 이루기는 하겠지만, 한 나라 안에 사는 시민들처럼 일정한 법체계 아래서 하나의 주권자 아래 종속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제법적 질서 아래서 결속하는 국가들이 형성하는 것은 국제국가나 통일된 세계정부 같은 것이 아니라 단지 국제연맹이다. 이는 칸트가 시민법과 국제법적 상태를 구별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로서, 만약 땅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세계국가로 통일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존재하는 것은 단지 한 나라에 속하는 시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시민법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칸트는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

16) 위의 글, 31쪽.

17) 위의 글, 33쪽.

■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는데, 그 까닭은 통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이 위력을 상실하고 끝내는 무법적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칸트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단순히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조정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원한 평화의 보증을 말해야 했던 까닭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즉 국제법적 관계가 아무런 주권적 강제권력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칸트가 말한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들을 몽상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스스로 세계정부의 수립을 거부하고 다만 국가들 사이의 자유로운 연맹 관계를 통해 국제평화를 확립하려 하였으므로, 개별 국가들을 평화로운 국제법적 질서로 강제할 주권적 권력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어려움 앞에서 칸트는 개별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보증해줄 수 있는 강제력을 현실적 권력에서 찾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서 찾는다. 칸트에 따르면, 영원한 평화의 실현은 “우리가 행하는 일(예를 들어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교육 같은 것)이나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어떤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우리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행할 어떤 것에 의존하는바, 그것은 인간 자신이 그렇게 쉽게 들어서려고는 하지 않을 길로 우리가 들어서도록 강제하는 것이다.”¹⁸⁾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평화를 보증해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인 자연이다. 자연의 기계론적 과정에는, 인간의 의지에 반하더라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불화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화합을 창출해내려는 합목적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¹⁹⁾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말없는 자연이 인간을 폭력이 지배하는 전쟁상태로부터 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18) über den Gemeinspruch, AA Bd. VIII, 310쪽.

19)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44쪽.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말인가?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자연은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전쟁상태 바로 그 자체를 통해 인간을 평화로운 법적 상태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한다.

국가들 사이의 평화는 말해 전쟁이 주는 선물이다. 그것은 지속적인 전쟁을 통해 지칠 대로 지친 인간이 더 이상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될 국제연맹과 세계시민적 법질서를 통해 확립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선한 의지가 실현했어야 했겠지만 실현하지 못한 일을 결국에는 무기력이 실현할 수밖에 없다.”²⁰⁾고 말한다. 국가를 마지막으로 가서 무기력상태에 빠뜨릴 정도로 지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전쟁은 인간을 다만 지치고 피로하게 만들도록 써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만 도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비나스는 전쟁을 통해 우리는 현실이 거칠고 혹독함을 체험하고 혹독하고 거칠고 모진 것, 그것이 곧 현실임을 전쟁 속에서 경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현실 이 의식을 가진 존재에게 일단 체험될 때는 ‘순수 존재의 순수 체험’이 된다. 무엇이라고 우리가 서술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술어를 붙여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의 있음, 그것의 현실성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단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레비나스는 ‘사건’이라 부른다. 사건은 사건이되, ‘존재론적 사건’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세계, 자신의 자리, 자기 동일성의 공간 속에 머물러 있던 존재자들, 각각 자신의 절대적 위치를 지키고 있던 개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동원하는 일이 레비나스가 ‘존재론적 사건’이라 부른 사건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전쟁의 폭력이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폭력은 사람들로 하여

20) über den Gemeinspruch, 311쪽.

■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금 스스로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참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실체까지도 배반하도록 만들며, 행위의 모든 가능성을 파괴하게 될 행위들을 수행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인격의 파괴’라고 말하면 아마도 좀 더 듣기가 쉬울 것이다. 사람이 사람으로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 인격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벗어나, 자신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의 폭력이다.

인용한 구절 마지막 부분에서 전쟁에 관한 레비나스의 핵심 사상이 드러난다. “전쟁은 또한 그 누구도 거리를 둘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을 구성한다. 따라서 전쟁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외재적이지 않다. 전쟁은 외재성을 드러내지 않으며, 타자를 타자로서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것은 동일성을 파괴한다.” 전쟁에는 바깥이 없다는 말이다. 외재성의 가능성이 전쟁에는 없다. 두 가지의 결과가 여기서 초래된다. 첫째는 타자를 타자로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동일자의 동일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레비나스의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여기서 만난다. ‘외재성’, ‘타자’, 그리고 ‘동일자’가 그것이다. 문자 그대로 수용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은 존재자들, 곧 개별자들, 절대자들을 움직이고 동원하되, 전쟁이 내리는 동원 명령에는 외재성이 들어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는 타자를 타자로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일자, 곧 내가 나로서도 설 수 없도록 만든다.

레비나스는 전쟁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 문제로 국한해서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을 동원하고, 객관적 질서 안에서 인격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전쟁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인 사건이며, 이 존재론적 사건의 핵심은 전체성 개념 속에 담겨 있다고 본다. 외재성, 곧 바깥이 없고 오직 안만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관계하는 존재 방식이 곧 전체성이다. 전체성 안에서는 어떤 것도 고유한 개체성을 지니지 못한다. 개인들은 ‘힘의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담지자'로 전체성의 틀 안에서, 전체성의 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총동원, 총력전 속에는 적군과 아군의 구별 외에, 민간인과 군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궁극적으로, 최후에 이기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²¹⁾ 그러므로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유보되고, 오직 미래의 승리만이, 현재에 의미를 줄 뿐이다. 개인은 개인으로서 고유성을 상실하고 서사시의 한 인물처럼, 전체를 배경으로 설정된 위치와 설정된 역할을 담당할 뿐, 고유의 판단과 양심의 부름에 반응해서 행동할 수 없다.

'도덕적 의식', 곧 '양심'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레비나스는 존재와 맺는 관계, 곧 존재하는 타인들과 맺는 관계의 변화를 요청한다. 그의 논지를 따르면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부른다. 이렇게 해서 얻은 평화는 전쟁을 기초로 한 평화일 뿐 '영원한 평화'에 이르지 못한다.²²⁾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들과 전적으로 '원초적이면서 독창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레비나스는 주장한다. 전쟁 위에 기초한 평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의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정치와는 다른 평화, 다른 정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를 강조할 것이다. 전쟁 위에 기초한 평화와는 다른 방식의 평화, 다른 방식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어디서 찾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²³⁾

21) '총력전'(Totale Krieg)은 클라우비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유행하기는 히틀러 치하의 선전장관 요셉 괴벨스(Joseph Goebbels)가 1943년 쓰기 시작할 때 부터이다. Jorg Bohse, "Goebbels' rede zum 'Totalen Krieg,'" in:http://www.mediaculture-online.de/fileadmin/bibliothek/bohse_goebbels/bohse_goebbels.pdf

22) 자기 유지의 존재론을 토대로 한 평화의 한계에 대해서는 "강영안, 『레비나스의 '평화의 형이상학': 일인칭적 관점에서 본 평화의 문제』(『平和의 哲學』,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편, 철학과 현실사, 1995, 219-240쪽)를 참조할 것.

23) 레비나스의 평화론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연구 가운데 로제 부르호흐라브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이다(Roger Burggraefe, Levinas over urede en mensrechten, Leuven, Acco, 1990, 13-179쪽 참조).

■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III. 동양철학의 평화 개념

춘추전국시대 이후로 왕조의 변화가 항상 전쟁을 수반했던 중국 전통에서 평화개념을 대표적으로 제시한 인물 가운데 하나는 목자이다. 목자는 천하 만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있어서 '비공'으로 대변되는 '불침해의 원칙'을 요청한다. 환언한다면, 목자는 '호혜적 교환의 원칙'으로부터 '불침해의 원칙'을 도출한다.²⁴⁾ '비공'은 '겸애'의 확장이며, '겸애'를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한 교의이다.²⁵⁾ 요컨대, 천하 만민을 자기와 동일시 할 것을 강조하는 목자의 겸애론적 안목에서 볼 때, 자가의 이익이나 자국의 부강만을 위한 침략전쟁은 겸애의 도리에 어긋나는 가장 불의한 행위이다. 침략전쟁은 이를 아무리 교식하고 정당화할지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과이기 때문에 목자의 '겸애'는 필연적으로 '비공'의 논의를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²⁶⁾

그런데 목자는 결코 일체의 전쟁을 반대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자는 전쟁 목적을 기준으로 할 때 침략전쟁만 반대할 뿐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자위의 전쟁은 반대하지 않는다.²⁷⁾ 원칙적으로 전쟁을 거부하는 평화주의자이지만 모든 전쟁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다른 나라의 부당한 일방적 침입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의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평화의 필요악으로서의 정의의 전쟁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전쟁폐지론자였다고 볼 수 있

24)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107쪽.

25) A. C. Graham, *Disputers of the Tao: Philosophical Argument in Ancient China*, 43쪽.

26) 신동호, 「목가 십론의 체계」, 『철학연구』 제20집, 한국철학연구회, 1975, 133쪽.

27) 박문현, 「목가의 겸애와 비공의 평화론」, 『통일전략』 제7권 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7, 273-274쪽.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다.²⁸⁾

목자는 전쟁의 참상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인식하고, 당시 전쟁을 일으킨 침략국의 위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웃나라의 변경을 넘어가서는 사람들이 농사지은 곡식들을 베어 버리고, 그곳의 나무들을 베어 버리고, 성곽을 부수고 연못을 묻어 버리며, 짐승을 함부로 죽이고 종묘를 불 질러 없애며, 백성들을 찢러 죽이고 노약자들을 죽여 없애며, 그 나라의 보물들을 가져간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침해’, ‘침탈’, 그리고 ‘침범’이라고 말해지는 종류의 ‘천하의 해’가 다른 아닌 침략 전쟁으로 인해 야기되었음을 고발한 내용이다. 목자는 이러한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⁹⁾

이제 어떤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복숭아와 배를 훔쳤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위정자가 알면 그를 벌할 것이다. 이는 어찌서인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자기의 이익을 꾀했기 때문이다. 이는 어찌서인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자기의 이익을 꾀했기 때문이다. 남의 닭과 돼지를 훔친 자는 그 불의함이 복숭아와 배를 훔친 자보다 더 심하다. ...남의 마구간에 들어가 소와 말을 훔친 자는 그 불의함이 닭과 돼지를 훔친 자보다도 더 심하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진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불의함도 더 심하고, 그 죄과도 더 커진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여 그 의복을 빼앗고, 그의 창이나 칼을 훔

28) 위의 글, 274쪽.

29) 이승환, 앞의 글, 107쪽.

■ 철학의 대중화 - 이현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친 자의 불의함은 남의 마구간에 들어가 소와 말을 훔치는 것보다 더 심하다. 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이 더욱 많은 까닭이다. 진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이 더욱 많아지면, 불안함도 더욱 심해지고 죄과도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은 행위를 보고 천하의 군자들은 모두가 이를 알고 비난하며 불의라고 말한다.³⁰⁾

목자는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마땅히 한 번 죽을죄가 생겨난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해 본다면 열 사람을 죽이면 불의함도 열배 기증되고 반드시 열 번 죽을죄가 생겨난다. 백 사람을 죽이면 그 불의함도 백배 기증되므로 반드시 백 번 죽을죄가 생겨난다.”는 입장을 피력하게 된다.³¹⁾

그럼에도 세속의 군자들은 그 불의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소유권의 침해’가 가장 심각한 침략전쟁의 불의함에 대해서조차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크게 불의한 것을 자행하여 남의 나라를 공략하는 자에 이르러서는 이를 나무라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기려서 의로운 자라고 하니, 진정 그것이 불의한 짓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이를 서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는 것이다.”³²⁾ 또한 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이제 비교적 작은 비행은 그릇된 줄 알아서 비난하지만 크게 비행을 저질러 남의 나라를 침공함은 나무랄 줄조차 모르고 도리어 기려서 의롭다 하

30) 『목자』, 「비공」 상.

31) 위의 글.

32) 위의 글.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니, 이 어찌 의와 불의를 분변할 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³³⁾

목자가 볼 때, 침략전쟁만큼 '불의'한 행위도 달리 없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떠한 침략전쟁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목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목자의 전쟁비판론을 공격하며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 자들'이 있었다. 목자는 이들을 '식공전자(蝕攻戰者)'라고 불렀다. 그들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초(楚)·오(吳)·제(濟)·진(晉) 네 나라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침략전쟁의 유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남쪽으로는 초나라와 오나라의 왕, 북쪽으로는 제나라와 진나라의 왕을 보면, 처음 나라에 봉해졌을 때에는 그 영지가 겨우 수백 리가 되지 못했고, 백성들의 수도 수십만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전을 벌였기 때문에 토지의 넓이는 수천 리에 이르게 되었고, 백성의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전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³⁴⁾

이에 대해 목자는 다음과 같이 논박한다.

비록 네다섯 개의 나라들이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정도를 행한 것은 아니다. 비유컨대, 의사가 병든 사람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 의사가 있어서 약을 조제하여 세상 모든 병자들에게 약으로 쓴다고 하자, 만 명이 이것을 먹고 네 다섯 명이 효과를 보았다면, 이는 오히려 약을 옳게 쓴 것이

33) 위의 글.

34) 『목자』, 「비공」 중.

■ 철학의 대중화 - 이현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자는 그것을 자신의 어버이에게 듣게 하지 않을 것이며, 충신은 그것을 자신의 왕에게 듣게 하지 않을 것이다.³⁵⁾

목자는 소수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의롭지 못한 이익추구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목자는 이기적인 욕망과 정의롭지 못한 이익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침략전쟁을 반대한다. 목자는 당시의 전쟁이 군왕의 명예와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는데,³⁶⁾ 이에 대한 손익계산은 차라리 잃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식한다.³⁷⁾ 이러한 연유로 목자는 침략전쟁이 합리화된거나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목자 전쟁비판론의 논의 속에는 '소유권의 침해'와 관련된 '이익'의 문제가 항상 결부되어 배제되는 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목자가 볼 때, 침략전쟁은 불필요한 재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소모전'일 뿐이다. 그래서 목자는 침략전쟁이 위로는 하늘의 이익에 위배되고, 가운데로는 귀신의 이익에 위배되며, 아래로는 인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이 내린 사람을 부러 하늘이 내린 도읍을 공격하니, 이것은 하늘의 백성을 찢러 죽이고, 신위를 파괴하며 사직을 뒤엎고 희생으로 쓸 짐승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니, 이것은 위로는 하늘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늘의 사람들을 죽이고 귀신의 제주를 없애며 옛 왕들을 부정하고 만백성을 해치

35) 위의 글.

36) 위의 글.

37) 위의 글.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며, 백성들을 흠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가운데로는 귀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늘이 내린 사람을 죽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점은 매우 박하다. 군대에 들인 비용을 계산해 보면, 모두가 백성들이 입고 먹는 재물이다. 천하 백성들이 사용할 재물을 고갈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니, 이것은 아래로는 사람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³⁸⁾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행위가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목자는 침략전쟁 자체를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런데 목자의 전쟁비판론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소유권의 침해'에 따른 불이익이 인간뿐만 아니라 위로는 하늘과 귀신의 범주에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은 목자의 '천지(天志)' 및 '명귀(明鬼)'의 사상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목자 전쟁비판론의 형이상학적 근거가 '천지'에 있다거나, 또는 목자 전쟁비판론이 '천지'의 유심론적 허위의식을 전제함으로써 현실적 구체성을 상실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는 비판될 수 없다.

목자의 이른바 '천지'의 의의는 고원한 형이상학의 정초를 위하여 제안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생성론이나 종교적 창조론의 주장과는 전연 관련이 없는, 일상의 인민들이 보고 들은 경험적 축적의 산물로서, 공리주의적 논거의 표준일 뿐이다. 목자는 사물의 유무나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수인의 경험내용이나 실제적인 견문 여하를 기준으로 삼는데,³⁹⁾ 이는 목자가 제시한 '세 가지 표준'⁴⁰⁾ 가운데 제2

38) 『목자』, 「비공」 하.

39) 『목자』, 「명귀」 하.

■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법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목자가 전쟁비판론 설명에 원용되고 있는 ‘천지’의 사상은 목자의 공리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⁴¹⁾인 사상적 색채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목자의 설명이 이를 방증한다. “목자는 천지를 세워 의법(儀法)을 세웠는데, 그것은 마치 바퀴 만드는 사람이 그림쇠를 갖고 있는 것과 같고 장인이 굽자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⁴²⁾

목자는 ‘천지’와 ‘명귀’가 ‘겸애’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일종의 ‘종교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⁴³⁾ 또한 ‘천지’란 신격화된 최고법칙이며, 이 법칙에 근거하여 상벌을 집행하는 귀신 또한 전통의식에 적용된 초자연적 감독력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은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자의 전쟁비판론에 결부된 ‘천지’는 목자 전쟁비판론의 철학체계를 완결하려는 목적에서 요청된 하나의 신권주의적 지남이라고 할 수 있다. ‘천지’가 가진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운행은 광대하면서도 사사로움이 없고, 그 베푸는 은혜는 두터우면서도 공덕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그 밝음은 오래가면서도 쇠퇴하지 않는다.”⁴⁴⁾ 요컨대, ‘천지’는 전쟁비판론을 강화하기 위한 목자의 사상적 준거로서, 이는 유효성, 객관성, 명확성, 장구성을 지닌 것이다.

40) 『목자』, 「비명」 상.

41) 북경대학철학계중국철학연구실에서 출판한 『중국철학사』는 목자철학의 특징을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지서 역시 목자가 천명 중심의 이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군권 신수론을 구체적으로 긍정하였음을 한계로 지적한다.

42) 『목자』, 「천지」 하.

43) Fung Yu-Lan. A Short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The Free Press. New York, 1966, 56쪽.

44) 『목자』, 「법의」.

IV. 평화철학의 가능성 검토

이상의 논의는 서양의 시대별 평화론과 동양의 대표 철학자인 묵자의 비공설을 검토해본 것이다. 묵자가 볼 때, 전쟁으로 인한 ‘소유권의 침해’는 인간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이익은 귀신과 하늘에까지 미친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묵자는 전쟁비판론의 사상적 완결을 위하여 하늘의 권위를 요청했고 그것이 바로 ‘천지’이다. 이 ‘천지’의 사상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불침해의 원칙’인 ‘비공’은 ‘겸애’의 확장이며, ‘겸애’를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한 교의이다. 이 역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아주 흡사하다. 그리고 묵자는 침략전쟁을 매우 비판하였다. 침략전쟁은 타자를 타자로 나타낼 수 없게 만들고 모조리 훼손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레비나스의 전쟁의 개념이 드러난다.

묵자의 평화철학은 ‘겸애’, ‘비공’, ‘천지’의 철학체계를 토대로 삼아, 함께 사랑하고 서로가 이익을 나누고자 한 평화의 사상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침략전쟁은 침략국이나 피침략국 상호간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그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절도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폐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묵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묵자 전쟁비판론의 철학정신은 핵전쟁의 위기를 안고 사는 현대의 인류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현실점에서 우리는 묵자가 주장한 비공설을 다만 하나의 꿈으로 치부한 것은 아닌지, 인류는 오히려 묵자의 정신을 외면하는 삶의 역사를 선택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초나라의 송나라 침공계획을 막은 후 송나라를 지나가다가 내리던 비를 피하려던 묵

■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자를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목자의 평화론 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론 역시 폭넓게 다루고 그 중에서 평화의 이론과 실천에 적합한 것은 다 찾아낸 뒤에 그것을 하나로 체계화하는 일이 다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이론과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세계평화가 달성되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한 그것 역시 이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세계평화를 달성하는 이론은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을 하나의 체계를 갖춘 이론으로 완벽하게 정리한다 할지라도 실지로 세계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평화는 세계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등장할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문명이 처해있는 상황은 몹시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병폐 또한 극도로 복잡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실천 방법은 더욱 간단치 않다. 이제는 한 사람의 사상이나 힘으로 달성할 수 있기가 어렵다.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자각한 사람들은 우선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진리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 진리에 오르는 길은 우선 기존의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기존의 방법을 따라 진리의 정상에 오르면, 그 진리의 내용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철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세계평화는 달성될 것이다. 그렇기에

철학의 대중화 - 이헌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21세기 현재적 상황 역시 동·서양의 평화론 뿐만 아니라 ‘평화철학’의 체계화와 실천은 매우 절실하게 요청된다.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 「레비나스의 정치철학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평화」, 『일본사상』 18권 0호,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0, 37-59쪽.
- 김상봉, 「법을 넘어서-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연구』 68권 0호, 철학연구회, 2005, 49-68쪽.
- 박문현, 「묵가의 겸애와 비공의 평화론」, 『통일전략』 제7권 3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7, 273-274쪽.
- 박채옥, 「칸트의 평화: 하나의 철학적 기획 그리고 이념」, 『범한철학』 33권 0호, 범한철학회, 2004, 203-226쪽.
- 서울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쟁과 평화론」, 『철학논구』 41권 0호, 서울대학교 철학과, 2013, 159-186쪽.
- 신동호, 「묵가 십론의 체계」, 『철학연구』 제20집, 한국철학연구회, 1975, 133-000쪽.
- 신일섭, 「토마스 아퀴나스의 국가관과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 인천가톨릭대학교, 2009, 30-000쪽.
- 오세혁, 『범철학사』, 세창출판사, 2004.

■ 철학의 대중화 - 이현진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에서의
‘평화’ 개념 비교 연구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이종성, 「묵자 전쟁비판론의 기본입장」, 『인문학연구』 87권 0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205-228쪽.

채이병,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평화의 문제」, 『철학』 제78권 1호, 한국철학회, 2004, 75-102쪽.